

# Taylor의 表出不安尺度의 韓國版

金 聖 泰

高麗大學校 心理學科

이 研究는 Taylor(1953)의 改訂版 "Personality Scale of Manifest Anxiety"를 韓國版으로 改案하여 韓國人의 表出의 不安을 測定하는 道具를 製作하는 데 그 目的이 있다.

### 尺度構成

尺度構成의 理論的 根據는 全적으로 Taylor(1953)에 따랐다. 問項構成에는 Taylor의 改訂版을 번역하였으며 一部 韓國實情에 맞지 않는 問項은 文句修訂을 加하는 程度에서 그쳤다. 表出의 不安을 測定하는 問項은 50個였으며 其外 表出不安測定과는 關係없는 問項 50個를 MMPI의 K,F,L 尺度에서 골라 100個 問項으로 檢査를 作成하였다. 問項配列에 있어서 表出의 不安을 測定하는 問項을 偶數番에 넣고 奇數番의 問項은 採點되지 않는 問項이다.

### 採點要領

檢査의 奇數番問項은 採點하지 않고 偶數番號에 限하여 採點한다. 이때 問項 2, 6, 8, 18, 24, 34, 56, 62, 74, 82, 96은 "√"를 하지 않았을때 得點을 하게 되고 其外 問項 4, 10, 12, 14, 16, 20, 22, 26, 28, 30, 32, 36, 38, 40, 42, 44, 46, 48, 50, 52, 54, 58, 60, 64, 66, 68, 70, 72, 76, 78, 80, 84, 86, 88, 90, 92, 94, 98, 100에서는 "√"를 했을때 得點하게 된다.

### 問項分析

이 檢査의 問項分析을 爲하여 1963年 9月부터 1963年 10月 사이에 다음表 1의 標集에 實施하였다.

表 1. 問項分析標集

標集名	人員數
中央高學生	111名
高大生	96 "
空軍士官	82 "
空軍士兵	81 "
計	370 "

檢査實施에 있어서 指示는 各問項에 대하여 被驗者의 性味傾向에 맞는 것에 "√"표 하도록 強調하였다.

表出不安을 測定하기 爲한 各問項과 全體點數와의 差

이의 Flanagan의 r을 計算하였다. 그 結果 滿足할 만한 相關關係를 얻어 內的合致度의 檢證이 이루어 졌다. 信賴度

問項分析集團의 資料에서 半分信賴도를 計算한 結果 修正된 信賴度  $r=.92$ 가 나왔다.

### 檢査의 規準

이 檢査의 規準은 前記 問項分析에서의 被驗者들로부터 計算되었다. 이것은 問項分析을 通하여 除去 또는 修訂된 問題이 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規準算出의 被驗者數는 370名이고 이들의 表出不安値는 다음 表 2와 같다.

表 2. 規準集團의 表出不安値

平均値(M)	17.8
中央値(Mdn)	16.6
標準偏差	7.95

表 2에서 檢査 粗點에 대한 百分率規準을 換算하면 다음 表 3과 같다.

表 3. 表出不安値의 百分率規準

粗點	百分位點
44	100
41	99
38	98
32	95
29	90
26	85
23	75
20	60
17	50
15	40
13	30
11	20
9	10
6	5
3	1

### 參 考 文 獻

Taylor, J. A. A personality scale of manifest anxiety. J. abnorm. soc. Psychol., 1953, 2, 285-290.

# 불안 표 출 검사

職 業 \_\_\_\_\_ 男·女 \_\_\_\_\_ 年 齡 \_\_\_\_\_ 歲 \_\_\_\_\_ 月 \_\_\_\_\_ 姓 名 \_\_\_\_\_

다음은 여러분의 평상시의 습관·성미·취미 등을 알아 보려는 것입니다. 자기의 성미경향과 맞는 글 앞에 V표를 치십시오.

- |   |  |
|---|--|
| <p>— 1. 나는 걸음걸이가 빠른 편이다.</p> <p>— 2. 나는 쉽게 피로하는 편은 아니다.</p> <p>— 3. 나는 말을 적게 하는 편이다.</p> <p>— 4. 나는 공연히 메시꺼워지는 수가 있다.</p> <p>— 5. 나는 낯 선 사람과는 어울리기가 싫다.</p> <p>— 6.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해 그리 신경질은 아니다.</p> <p>— 7. 나는 일을 급히 서둘러 하는 편이다.</p> <p>— 8. 나는 자주 두통을 앓는 편은 아니다.</p> <p>— 9. 나는 물건을 잘 잃어 버린다.</p> <p>— 10. 나는 일을 하려면 심하게 긴장된다.</p> <p>— 11. 나는 옷을 잘 더럽힌다.</p> <p>— 12. 나는 한 가지 일에 오래 열중하지를 못한다.</p> <p>— 13. 나는 새 친구를 사귀기가 힘들다.</p> <p>— 14. 나는 늘 돈 걱정, 일 걱정에 사로잡혀 있다.</p> <p>— 15. 나는 일을 꾸물꾸물하는 것을 보면 울화가 터진다.</p> <p>— 16. 나는 무슨 일을 할 때면 손이 떨려서 곤란을 느낀다.</p> <p>— 17. 나는 남들보다 더 많이 먹는 편이다.</p> <p>— 18. 나는 그리 부끄러움을 타지는 않는다.</p> <p>— 19. 나는 분하면 말을 못하는 성미다.</p> <p>— 20. 나는 한 달에 한 번 이상 설사를 한다.</p> <p>— 21. 나는 무엇이든 깊이 생각하는 성미다.</p> <p>— 22. 나는 어떤 불행이 닥쳐 올 것 같아서 근심을 한다.</p> <p>— 23. 나는 손이 더러울 때는 기분이 나빠 못 견딘다.</p> <p>— 24. 나는 부끄러워 얼굴을 붉히는 경우가 거의 없다.</p> | <p>— 25. 나는 아침 일찌기 일어나지를 못한다.</p> <p>— 26. 나는 이따금 얼굴이 붉어질까봐 걱정을 한다.</p> <p>— 27. 나는 남들과 싸우기를 좋아하지 않는다.</p> <p>— 28. 나는 자주 무서운 꿈을 꾀다.</p> <p>— 29. 나는 친구의 일을 잘 돌보아 주는 편이 아니다.</p> <p>— 30. 나는 손발이 늘 뜨거운 편이다.</p> <p>— 31. 나는 어려서부터 남과 두드리고 싸운 적은 없다.</p> <p>— 32. 나는 다급하면 땀이 쏟아져서 못 견딘다.</p> <p>— 33. 나는 부모의 걱정을 늘 근심한다.</p> <p>— 34. 나는 심장이 두근거린다거나 숨이 막히는 일을 느껴 본 적이 없다.</p> <p>— 35. 나는 무서워서 배나 기차를 못 탄다.</p> <p>— 36. 나는 늘 배고픈 느낌이 있다.</p> <p>— 37. 나는 남을 늘 의심한다.</p> <p>— 38. 나는 때때로 변비 때문에 며칠씩 대변을 못 본다.</p> <p>— 39. 나는 동무와 같이 놀면 언제나 선두에서 지휘하는 편이다.</p> <p>— 40. 나는 위장병으로 늘 고생을 한다.</p> <p>— 41. 나는 남을 욕하는 적이 거의 없다.</p> <p>— 42. 나는 때로는 근심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때가 있다.</p> <p>— 43. 나는 늦게 자고 일찍 일어나는 편이다.</p> <p>— 44. 나는 잠이 깊게 들지 못하는 편이다.</p> <p>— 45. 나는 내기를 하면 애가 타서 못 견딘다.</p> <p>— 46. 나는 남에게 이야기할 수 없는 일을 꿈에 잘 꾀다.</p> |
|---|--|

- 47. 나는 내 물건을 남에게 빌려 주기를 꺼린다.
- 48. 나는 쉽게 당황하는 편이다.
- 49. 나는 친구들과 옷을 잘 바꾸어 입는다.
- 50. 나는 감정이 잘 상하는 편이다.
- 51. 나는 친구를 집에 많이 끌어 들인다.
- 52. 나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쓸 데 없는 거정에 잠기곤 한다.
- 53. 나는 잠꼬대를 많이 한다.
- 54. 나는 늘 남같이 행복하였으면 하고 한탄을 많이 한다.
- 55. 나는 몸이 아파도 학교나 직장을 쉬지 않는다.
- 56. 나는 늘 마음이 편안하여 동요가 없다.
- 57. 나는 냄새를 잘 못 맡는다.
- 58. 나는 잘 운다.
- 59. 나는 미운 이 하고는 말도 하기 싫다.
- 60. 나는 언제나 무엇을 근심하는 편이다.
- 61. 나는 남의 심부름을 잘 해준다.
- 62. 나는 언제나 행복하다.
- 63. 나는 이성 교제는 어색하여 몹시 주저한다.
- 64. 나는 무엇이든 기다리면 짜증을 잘 낸다.
- 65. 나는 회의에서 의례 사회를 보게 마련이다.
- 66. 나는 어떤 때는 안절부절 못하고 오랫동안 가만히 앉아 있지 못한다.
- 67. 나는 기분이 들쭉날쭉하는 편이다.
- 68. 나는 가끔 흥분하면 잠을 못 잔다.
- 69. 나는 자주 콧물 감기에 걸린다.
- 70. 나는 어찌할 줄 모르는 곤란을 곧 잘 당한다.
- 71. 나는 계획적으로 일하는 셈이다.
- 72. 나는 문제도 안 될 것을 까닭 없이 근심하곤 한다.
- 73. 나는 외나무다리도 무서워 못 건넌다.
- 74. 나는 다른 사람처럼 무서움을 타지는 않는 편이다.
- 75. 나는 내 의사를 굽히기를 싫어한다.
- 76. 나는 때로는 아무렇지도 않은 자를 무시워 한다.
- 77. 나는 가슴이 답답하여 못 견디는 때가 가끔 있다.
- 78. 나는 나 자신이 쓸모 없는 자로 생각된다
- 79. 나는 깜짝 깜짝 잘 놀란다.
- 80. 나는 일에만 몰두하지는 못하는 성미다.
- 81. 나는 늘 벋글벋글 웃는 편이다.
- 82.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대범한 성격이다.
- 83. 나는 싸워서 말 않고 지내는 자가 많다.
- 84. 나는 모든 일을 까다롭게 생각하는 측이다.
- 85. 나는 성미가 무뚝뚝하다는 말을 듣는다.
- 86. 나는 대단히 신경질을 부린다.
- 87. 나는 혼자 중얼거리는 때가 많다.
- 88. 나는 인생이란 것이 고달픈 것이라고 생각 한다.
- 89. 나는 늘 우울하다.
- 90. 나는 때로는 나 자신이 믿어지지 않는다.
- 91. 나는 얼굴을 잘 찌프린다.
- 92. 나는 때때로 나 자신이 파멸되고 있는 느낌을 갖는다.
- 93. 나는 목욕하기를 싫어하는 편이다.
- 94. 나는 까다로운 일, 어려운 결정을 귀찮아 한다.
- 95. 나는 음식을 가려 먹고, 안 먹는 음식도 많다.
- 96. 나는 언제나 자신만만하다.
- 97. 나는 약속을 잘 어긴다.
- 98. 나는 때때로 내가 아주 틀린 놈이라고 생각한다.
- 99. 나는 총계를 단번에 두서너개씩 올라가는 성미다.
- 100. 나는 외로워 못 견디어 한다.